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그의 고뇌와 의지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우민호 감독 '하얼빈'

'광화문 초대장'으로 일컬어지는 "이 시국의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는 '하얼빈'이 개봉되었다. 우민호 감독은 전남 출신답게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를 중시 여기는 감독이라 전작인 '내부자들' (2015) '남산의 부장들' (2020)을 통해 권력과 부패, 인간의 욕망을 심도 있게 파고든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의 여섯 번째 작품인 '하얼빈'은 이와 달리 역사극에 도전한 것이다. 한 시대를 집요하게 파고든 감독의 예리한 연출력은 도리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대작다운 면모가 있었다.

영화의 첫 신은 쫓겨온 얼어붙다 못해 균열로 갈라진 두만강을 고뇌에 찬 한 사람이 금방이라도 스러질 듯 걷고 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배우 현빈)이다. 그가 이끌었던 독립군은 구국의 일념으로 봉천 기개가 대단해서 일본군과의 신아산(함경북도) 전투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룬



우민호 감독 '하얼빈'.

CJ ENM 제공

다. 안중근은 사로잡힌 일본군 포로를 만국공법을 지키기 위해 풀어주었지만, 풀려난 일본군 소좌 모리다쓰오(배우 박훈)는 되레 급습하여 많은 독립군 동지들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고뇌와 슬픔, 자책으로 길을 잃고 안중근. 독립군 사이에는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질책이 따르게 마련인지라, 그는 자신의 약지를 잘라 을사늑약의 원흉인 총감 이토 히로부미(배우 릴리 프랭키)를 처단할 것을 맹세한다. 이듬해인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하얼빈 행을 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안중근과 독립군 일단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한다. 이곳에서 만난 공부인(배우 전여빈)은 독립군 남

편을 잃은 미망인이나 그녀 역시 신념 투철한 여성 독립투사로서 조력에 최선을 다한다. 그녀는 안중근과의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나눈다. "먼저 가신 동지들이 지켜줍니다."

115년 전 당시 독립군들의 일념이자 소명은 '구국'이었으리라. 그렇다고 그들 간에 갈등과 고뇌가 없었을 리가 없다. 먼저 간 동지들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자 책무이며, 내적 갈등이 앞에도 나아가야 하는 동력이자 신념이었을 것이다. 감독은 안중근을 새롭게 해석했다. 안중근 의거에 동참한 우덕순을 위시한 수많은 독립군들의 희생이 없었어야 안중근도 의거에 성공할 수 없었다. 그

들은 "과연 독립이 될까?"라는 의구심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맞서야 했고, 이름 없이 잊히고 말 존재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며, 먼저 간 동지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온 몸을 바쳐 싸우는 불굴의 의지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자리했다.

영화 속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이렇게 평가한다. "500년을 이어온 조선은 무능한 왕과 어리석은 유생들이 이끌어왔지. 그렇지만 국민들은 달라. 조선인들은 국난을 당할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300년 전 침공때에도 생각지도 않은 의병이 일어났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민초'들이란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위인이다. 그가 갖는 역사적 아이덴티티에 감독은 인간적 면모를, 동지애를, 투철한 희생과 신념을 지극히 담백하게 조명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당시의 현실감이다. 영화는 이를 위해 라트비아와 몽고의 러시아 유적건물이 있는 거리를 로케이션 헌팅을 했다. 정평이 난 흥경표 촬영감독의 연출하에 ARRI ALEXA 65 카메라로 회화적 미장센을 구현했으며, OST며 BGM 또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서 몰입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성을 기울인 것은 의상과 소품도 예외가 아니었다. 관객을 당시로의 시간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 여러 요소로 인해 영화 '하얼빈'은 큰 무리 없이 시대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영화의 말미에 감독의 메시지가 집약돼 있다. "어두움이 있어도 햇불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기후위기 시대, 도심 저수지의 재발전과 관리 방안

고준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위원

오·폐수, 유독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저수지로 유입된 유기물과 영양염류가 과다 축적되어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초래하고, 특히 영양염류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여름철 뿐만 아니라 겨울철까지도 남세균을 증식시켜 녹조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심 저수지의 가치를 증진하는 활용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심 저수지는 단순히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가치전환이 필요하다. 저수지를 중심으로 녹지와 습지를 조성한다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자연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저수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심 저수지는 시민들에게 산책로, 자전거길, 또는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또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기후위기와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수지는 가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도심내 긴급 용수공급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질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질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비점오염원 차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저수지 주변

유입부에 완충저류지를 두어 협잡물, 침강성 입자를 제거하고, 여과시설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오염물질 유입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저수지 바닥에 퇴적된 침전물은 정기적으로 제거하여 유기물과 오염물질 재용출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저수지 저장용량을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습지, 생태수로, 수질정화림과 같은 자연기반해법(NbS)을 도입하여 수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소동물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수생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저수지 관리를 공동 책임으로 인식시키고, 정화활동과 환경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심 저수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이상 쓸모가 없어진 옛날 농업용 저수지가 아니라, 도시생태계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으로 전환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방치된 도심 유휴저수지가 도시화와 기후위기로 메말라가는 도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물줄기로 가치를 다시 찾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트라우마 고려하지 않은 '재난보도준칙'

취재수첩
정성현
취재1부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조희수 장사'의 희생양이 됐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미디어 황포에 '2차가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박한신 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30일 "유족 개별 인터뷰를 자체해 달라. 유족 대부분이 (트라우마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은 협회 내 보도준칙조항을 통해 '비윤리적인 취재를 금지하고 무리·선정적 보도 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적용받는다. 특히 제18조 피해자보호는 '보도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참사에서는 이 준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내년 1월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이 진행된다. 최소한 이 기간만이라도 '지역·정치적 갈라치기 논조'는 지양돼야 한다. 또 '뇌피셜'에 가까운 추측성 보도보다 명확한 원인·책임 규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

기자로서 사회적 재난을 책임있게 애도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짚는 것이 아닌, 비극이 남긴 구조적 문제를 묻고 이를 바로잡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희생자에 대한 최선의 예우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다시 소중한 목숨이 황망하게 뺏겨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기자 선배를 비롯해 희생자 모두의 영면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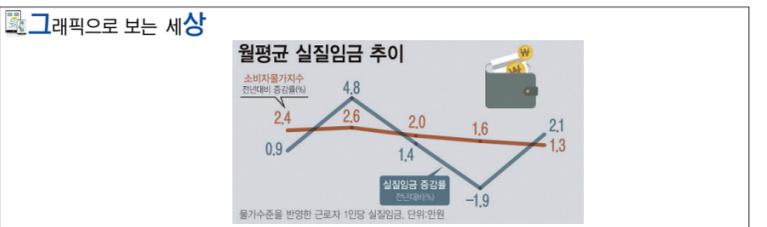
한 해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179명 고인들의 명복을 받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2년 만에 마주한 '지역 참사'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재해재난 사고가 터지면 기자들은 앞다투어 '속도전쟁'을 치른다. 또 어떠한 실마리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 무자비한 취재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그 민낯은 여과없이 보였다.

모 중앙지와 지역지는 지난 29일 사망자의 이름·소속 등 개인 신상정보를 온라인·지면에 노출했다. 특히 해당 중앙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무안공항의 짧은 활주로'로 틀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수정·삭제조치 했지만 이를 본 많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기레기는(기자+쓰레기) 여전하다'는 지적을 했다.

유가족들은 현장에서 무모하게 들이치는 언론의 카메라·마이크에 '진절머리 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들의 피울음과 통곡은 모자이크 없이 유출됐고 소위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